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1주일(예수성심 성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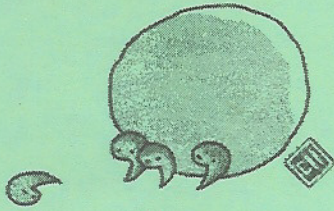
제28권 29호(가해) 2008·6·15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묵상]

그리고, 그래서, 그렇지만,
반면에, 또한, 그러므로
듣고만 있어도 숨이 참니다.



심포도 마침포도 다
쏘임이 있지 않겠어요?

어느 나라 말에든 접속사라는 품사가 있다.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
접속사에는 앞과 뒤의 설명 또는 이유를 위한
대등한 관계를 보이는 것도 있고
조건과 결과의 관계를 보이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자, 그리고, 또, 및, 게다가,
아니면, 혹은, 또는, 말하자면, 즉,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러므로, 따라서,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단, 하지만 ...
이들 중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접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 10:8)
그저 "예!"라는 대답에 인색하여
갖은 이유와 설명을 늘어놓는 우리들이다.
"예!"라는 대답이 힘들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어떨까?(大)

미사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 (3째주) 울트레아 (4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 (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장대 파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종돈 스테파노, 고준희 제임스, 이안나 홍정숙 엘리사벳, 김성용 방지거
	(생)고천용과 고규재 체칠리아 가정, 최효선 안젤라 홍지혜 소피아, 이재정 요한, 이지현 이사벨라 김다니엘과 안젤라,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주 일 낮 미사	(연)김종돈 스테파노,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이금순 마리아, 노식 베드로, 이강봉 임병삼 마리아, 김용팔 다두, 이재우 마티아, 심재순
	(생)고천용과 체칠리아 가정, 이종민 요셉 배진영과 배클라라 가정, 최기남 야고보 김준형 마태오, 김숙희 심포로사, 지요하 막시모 변세연 대건안드레아와 올리아나 가정 김준호 크리스토퍼, 정열모 미카엘 가정, 김영민 스테파노 가정, 김영석 마태오 가정 김혜신 카타리나, 권영옥 루시아 가정, 이준 마커스 요셉회 회원들, 이마태오와 이마르코 김내은 로사리오, 첫영성체한 학생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19,2-6ㄱ
화답송	◎우리는 당신 백성이여라, 기르시는 그 양떼이여라. <전례성가81, 연중 제11주일 A해> ○온누리 반기어 야훼께 소리쳐라. 기쁨으로 야훼님 섬겨드려라. 춤추며 당신앞에 나아가라.◎ ○야훼는 하느님, 너희는 알라.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당신의 것, 당신 백성이여라, 기르시는 그 양떼이여라.◎ ○야훼님 좋으시다, 영원하신 그 사랑. 당신의 진실하심 세세에 미치리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6-11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 음	마태오(Matthew) 9,36-10,8
영성체송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로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33	313
봉헌	410	272,243
성체	418	285,307
파견	426	226

13. 선교(宣敎)하는 교회(교)

선교 활동은 하느님 나라의 건설과 구원에 동참하자는 초대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잔칫상을 차려 놓았더라도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오늘날 세대에서 남을 일을 내 일처럼 도와주며 아무런 사심 없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열게 되고 마침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아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선교 활동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언직과 사제직과 왕직(봉사직)을 올바르게 수행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형제자매와 친구들, 직장 동료와 가까운 이웃 가운데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노력하자.

14.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니시던 이스라엘 곳곳을 성지(聖地)로 정하여 순례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도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준 모든 성인을 공경한다.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사시던 곳이기에 성지라 불리고,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전하기 위하여 일생을 바쳤기에 성인으로 공경 받는다면, 예수님을 낳으시고 기르신 마리아를 더 거룩한 분으로 존경하는 일은 당연하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루카 1,28-38)

◆(CBCK 제공)

물과 같이 흐르는 사랑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마태9,36). 예수님의 이 마음은 복음의 핵심이며 구원사업의 원천이고 "하느님의 크신 자비"(루카 1,78)와 "하느님의 인간애"(티토 3,4)를 드러내는 감정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뀝니다.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부족이 12개였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고 새 계약을 맺고자 하시는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탈출 19,5)라고 하신 제1독서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목장의 양 떼로다"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올렸듯이,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새 이스라엘 역시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로다"(시편 100,3)라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느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 출신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즉 가지와 나무의 관계처럼 예수님께만 붙어 있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에 순명해야 합니다. 이 두 차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12제자들의 새

로운 신원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이라 불리며,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해야 하고 그분이 하신 것과 동일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 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요, 병자와 허약한 이들에 대한 치유는 이 세상 삶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의 이 권한은 사랑의 권한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이미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로마 5,8). 따라서 사랑의 권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기에 타인들에게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물과 같아서 흘러가야만 하지, 내 안에서 고이게 되면 썩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사명이 성직자나 수도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사명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의 시작은 타인에 대해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요, 그 마음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 스스로가 수확할 밭의 일꾼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말과 행위로 증거해야 합니다.

◆변중찬 마태오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미영 미카엘라	엄영숙 마리아	해설자	송주영 크레센시아	신덕례 데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김제영 프란치스코	배재일 미카엘	이민상 요한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김교복 레오	서병교 라파엘
제2독서자	이화영 잔다르크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강혜원 아네스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황지영 안젤라	서혜경 세라피나
제물봉헌자			도린스 동 1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 4 -

이 주간의 축일 (6월15일~6월21일)

축하합니다

- 15일 : 모데스토 동정녀, 비토 순교자, 란델리노 원장, 젤마나 동정녀, 크레센시아 순교자
- 16일 : 베논 주교, 아우렐리아노 주교, 귀리코 동정녀, 뭇가르다 동정녀, 유스티나 순교자, 율리아 주교 순교자
- 17일 : 그레고리오 주교 증거자, 마누엘 순교자, 아비토 원장, 히메리 오 주교, 테레사 여왕, 산치아 순교자, 에밀리 동정녀
- 18일 : 포르투나도 증거자, 아만도 주교, 엘리사벳 동정녀
- 19일 : 로부알도 원장, 제르바시오 순교자, 프로다시오 순교자, 율리아나 동정녀
- 20일 : 실베리오 교황 순교자, 고반 순교자, 플로렌티나 동정녀, 헬리아 동정녀
- 21일 : 알로이시오 수도자, 레우프리오 원장, 예우세비오 주교, 테메트리아 동정 순교자

남가주 소식

◆ 청소년들을 위한 꽃동네 Summer Camp 피정

- 일시 : 6월26(목)~29(주일), 3박 4일
- 대상 : 7학년~12학년
- 참가비 : \$120 ☎ 951-302-3400

◆ 청년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7월3일(목)~6일(주일)
- 지도 : 최석현 마르코 신부, 주최:남가주 성령쇄신 청년봉사회
- 참가대상 : 18세~33세 미혼 및 기혼자
- 신청 : 6월20일까지, 회비 : \$170
- 장소 : 테메큘라 꽃동네 ☎ 714-458-4687 John Cho

◆ 남미 의료 봉사단 파견

- 일시 : 7월7일(월)~16일(수), 에콰도르 파야칼
- 지도 : 이영찬 사도요한 신부(LA 성 아그네스 성당 주임)
- 참가비 : \$1500 ☎ 213-272-7404 김안나
(의사/간호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인/모집

- ◆ 한국정부장학생 TaLK (Teach and Learn in Korea) 모집
한국의 영어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대통령 장학생 인증서가 수여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http://talk.mest.ko.kr>

◆ 미주 가톨릭방송 기술직 봉사자 모집

- 자격 : 18세 이상 세례받은 신자로 컴퓨터 사용 가능한 분
- 문의 : ☎ 213-385-5564

이번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강당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양금 안나 518-3041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김찬구 요한 701-6343 6/21(토) 오후7시, 성당
	3	한길선례 스프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례 스프라스티카 782-1025 6/13(금) 오후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중섭 마틴 533-1435 6/21(토)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최상만 사비노 540-9230 6/13(금) 오후 7시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6/10(화)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신정주 엘리사벳 891-1837	엄영숙 마리아 373-5662 6/13(금) 오후 7시
	2	임진희 한나 720-7898	양희숙 오틸리아 328-7795 6/11(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안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6/14(토) 오후 6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권오상 바오로 257-8416 6/13(금) 오후 7시
	3	전광락 야고보 408-3175	전광락 야고보 408-3175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메스 326-2283	주다니엘 530-3470 6/14(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안민수 베드로 544-6807 6/13(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서병교 라파엘 544-6377 6/20(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임엘렌 373-1690 6/4(수) 오전 10시30분

과학으로 세상보기

우주(宇宙)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우주를 탐구하는 과학자들은 예상보다 우주가 더 복잡하고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마다 난리법석을 부린다. 1500년대부터 1600년대에 이르러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뉴턴은 지구가 수많은 별들 중, 궤도를 돌고 있는 많은 행성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폐쇄되고 작은 우주만을 생각하던 안이한 중세의 관념을 깨뜨렸다. 1920년대 허블은 우리의 우주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우주가 생긴 그대로, 만들어진 그대로 있다는 기존의 생각을 부숴버렸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우주론자들은 별과 은하계와 사람을 구성하는 보통 물질(ordinary matter)이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중 5%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우주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골머리를 앓던 과학자들이 직면한 한 가지 질문은 바로 “우주는 무엇으로 만들어 졌는가?”라는 것이다.

1960년대에 천문학자들은 오랜 관측을 통해 은하들이 충분히 빨리 돌아 별들 간의 중력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 별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중력 이외의 영향을 미치는 발광하지 않는 물질, 이것이 바로 암흑물질이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이 암흑물질 중 몇 개를 발견했다. 그들은 X-ray 망원경으로 유령 같은 가스 구름을 보았다. 보이지 않는 물질 덩어리들이 그들 앞에 있는 것처럼 반짝이고, 은하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질량에 의해 야기된 시공간의 휨을 관측했다. 그리고 원시 가스 구름 속의 많은 원소들을 관찰한 덕분에 물리학자들은 보통의 물질은 단지 10%만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보통’의 물질에 10을 곱한다 해도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천문학자들이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볼 때, 한 덩어리의 우주를 보게 된다. 은하계는 하늘에 균일하게 점 찍혀 있지 않다. 그들은 광대한 공간 속에서 얇은 얇은 덩굴손과 필라멘트처럼 함께 뭉친다. 단지 은하계가 적당한 속도로 회전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눈에 보이는 물질이 없는 것처럼, 덩어리들로 간주되기에 충분한 보통의 물질도 없다. 과학자들은 지금 아직 발견되지 않은 타입의 입자로 이루어진 암흑물질의 또 다른 형태로 인한 중력이 이러한 광대한 우주구조를 조각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들은 이 색다른 암흑물질이 우주의 물질들 중 약 25%를 차지한다고 추정한다. 이는 보통 물질보다 다섯 배나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 신비한 존재는 또 다른 미스터리 암흑에너지와 비교함으로써 드러나게 된다. 1990년대 후반기에, 멀리 떨어진 초신성을 조사하고 있던 과학자들이 물리학 법칙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주가 천천히 축소하는 대신 더욱 더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주를 부풀리는 어떤 종류의 반중력이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현상의 독립적 측정-우주배경복사, 풍부한 원소, 때 지어 모이는 은하, 중력 렌즈, 가스 구름 - 모두 일관되게 한데 모이고 있으나 우주의 그림은 기괴하다. 보통의 물질과 색다른, 알려지지 않은 입자가 우주에서 대략 30%를 함께 구성하고 있다. 나머지는 암흑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신비한 반중력이다.

우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해석하려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한다. 보통의 암흑물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암흑물질은 어디에 있는지? 우주에서 무거운 물체에 의한 빛의 휨을 측정하는 것과 같이, 천체 물리학의 관찰은 이미 답을 준다. 색다른 암흑물질은 무엇인가? 과학자들은 운 좋으면 고에너지의 원자 분쇄자 또는 깊은 곳에 묻어둔 암흑물질의 트랩이 향후 10년 내에 새로운 타입의 입자를 발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암흑에너지는 무엇인가? 10년 전에는 제기되지도 않았던 이 질문은, 이제까지 관찰된 다른 어느 현상보다 더, 알려져 있는 물리학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중력 렌즈의 계획된 관찰뿐만 아니라 초신성과 우주배경복사의 이제까지보다 더 나은 측정은 암흑에너지의 “상태의 방정식”에 관한 정보를 줄 것이다. 본질적으로 물질이 상당히 호물호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 암흑에너지의 본성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많아지고, 이는 당연 물리학에서 가장 확실하지 않은 문제이다. 그리고 그 대답을 찾았을 때 가장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글 / Charles Seife>